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하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목장주일' 모임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잘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9월 월삭새벽기도회는 9월 3일(월)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4. 다음 주일낮예배 시에는 매월 첫째 주에 드리는 성찬예식이 있습니다.
5. 다음 주일낮예배 기도담당은 신동기 집사님입니다. 오후찬양예배는 이영선 권사님입니다.
6. 담임목사님의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임시당회와 공동의회를 한 주간 연기 하였습니다. 임시당회는 9월 1일(토)에 있으며, 이를 결정하기 위한 공동의회는 9월 2일(주일) 점심식사 후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 날짜	9월 2일	9월 9일	9월 16일	9월 23일
예배기도(오전)	신동기 집사	오승현 집사	이준화 집사	박성대 집사
예배기도(오후)	이영선 권사	최운정 권사	신경미 권사	추석연휴
주일식사담당	헵시바 목장 (김금옥 권사)	양떼 목장 (황희용 권사)	눔바 목장 (유숙정 권사)	로뎀 목장 (정진숙 권사)
토요일청소	둘로스 목장 (9/1)	주사랑 목장 (9/8)	갈렙·아론목장 (9/15)	에덴 목장 (9/22)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하늘문교회 2020비전을 위해서
2. 남·여선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4. 병환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양강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쉼터.(국내) 사역자를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427번지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서교독	다같이
*경배찬송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다같이
대표기도	권용기 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다같이
*결단송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
달
의
말
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찬양예배는 '목장주일'로 모입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요한복음 강해 허영진 목사
요 9:1-12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1)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기도를 향한 과녁'(46)

새벽기도회 새벽 5:30 시편 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시 84:1-12 '여호와께 해오 방패이사라'(1)-(5)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어나자'

담낭 제거 수술을 위해 인근 병원에 입원했다 5일 만에 퇴원했다. 모든 것이 다 바뀐 듯하다. 날씨도 마찬가지다. 입원한 그 전후로 말복이며 처서가 있어서인지 이글거리는 폭염도 말복, 이어 처서가 지나자 거짓말같이 사라졌다. 말 많은 태풍 '솔릭'이 어느 정도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솔릭스럽게'(부산했지만 심겁게) 지나가고 말았다. 하늘은 지글거리던 태양 대신 청명한 수채화를 그려 놓고, 곧 끓어오를 듯 맹렬하게 타오르던 수온도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듯하다. 강렬한 태양은 여전하지만 끈적이던 습기는 사라지고 그늘에서 맞는 바람은 선선하다. 그래서일까. 더위에 지쳐 바라보던 풍경도 이제는 제법 생경하게 다가온다. 막연히 기다리던 선선한 가을바람이 실제로 부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는 말이다.

수술 후 후유증이 제법 오래갔다. 예정대로라면 퇴원 후 샤워를 하고 외출을 해도 된다고 했는데, 전혀 그럴 수가 없다. 수술 부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다. 샤워랑 외출은 고사하고 똑바로 누워 잠 한 번 제대로 자보는 게 소원이었다. 연이틀 동안 통증이 심해 새벽마다 응급실을 찾았다. 겨우 진통제 주사로 고통을 다스린 후에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입원 중에도 힘들게 간호했던 아내가 퇴원 후에도 새벽마다 응급실로 데려다니느라 생고생을 했다.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고 그렇게 응급처치를 받고 돌아 나오는데 유난히 눈에 밟히는 게 있다. 병원 앞 24시 식당의 간판 중에, '순두부', '된장찌개'란 메뉴였다.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차마 입을 뗄 순 없었지만, 나중에 꼭 먹으리라 다짐하고는 군침만 삼켰다.

토요일 오전 8시 40분 무렵, 수술한 부위 실밥을 제거하느라 수술담당 주치의를 찾았다. 차츰 좋아질 것이라는 대담만 반복해서 들으면서. 보조차원으로 영양제 링거 한 대를 처방해 주었다. 그렇게 응급실 앞 환자 대기실 앞에서 링거주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40여 명의 환자들이 병원업무 시작을 기다리며 저마다의 아픈 사연을 가진 채, 미동도 않고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8시 50분 정각이 되자 번호표의 순서에 따라 번호가 불러졌다. 일순 정적이 깨지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어나 번호표에 따라 자기가 가야 할 진료실로 향했다. 거기에는 회복을 담은 희망이 함께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견디기 힘든 더위를 이겨내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자연을 보면서 조석으로 변하는 우리네 마음을 되돌아보게 된다. 지난 폭염의 힘겨움도 아픔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일어난다면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을 확연히 느끼지 않을까 싶다.

Written by 허영진